

광산구,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컨설팅 지원

‘골목상권 상생 멘토단’ 운영 26일까지 ‘멘티 사업장’ 모집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26일까지 ‘광산 골목상권 상생 멘토단’에 멘티로 참여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모집한다.

‘광산 골목상권 상생 멘토단’은 그간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 관공서 주도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벗어나 ‘선배 사장님’이 직접 체득한 영

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실천형 상호 학습 형태로 운영한다.

광산구 사장님 아카데미 100명의 수료생과 골목상권 상인회 소속 ‘베테랑’ 자영업자들이 멘토로 나서 장사 전략과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동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나눌 예정이다.

멘토링은 매주 1회, 8주 과정으로, 실제 현장 진단에 기반한 학습을 위해 멘토·멘티 사업장을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대표메뉴 선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마케팅 △배달앱 진입 △적정 가격 책정 △위기 극복법 등을 함께 학습하고 고민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산구는 또 전문가를 ‘골목상권 총괄매니저’로 지정, 멘토단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모든 멘토링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업장 운영에 고민이 있는 광산구 자영업자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멘티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http://naver.me/IDbleSnH>)으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기업경제과(062-960-3878)에 문의하면 된다.

/서기만 기자

서구,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최종 확정 5대 분야·21개 공약·49개 과제 공약 실천계획 수립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난 7월 29일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서구는 김이강 구청장이 출마선언 이후 주민에게 약속한 내용들의 실천 가능성, 효과성 등과 관련해 소관 부서 검토 후

경제도시 ③사람중심 복지도시 ④생태중심 안전도시 ⑤행복중심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확정된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확정 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서구는 분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부서 자체평가를 비롯해 매년 1회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약 이행평가단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별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구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5대 분야, 21개 공약, 49개 과제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민선8기 주요 공약으로는 ▲우리 동네 마을정부 기능 강화 ▲소상공인 다시서기 발판 마련 ▲함께서 구 돌봄체계 구축 ▲기후위기대응 1번지 녹색서구 실현 ▲건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지역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다.

이는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구정 구호와 함께 5대 구정 방침인 ①마을중심 자치도시 ②골목중심

이행평가단의 정기적 평가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약사항에 대해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앞으로 차질 없는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한 삶!’ 한마디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기만 기자

북구, 하반기 남도 전통음식 광주 대표음식 수강생 모집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31일까지 ‘2022년 하반기 남도 전통음식·광주 대표음식’ 강좌와 식(食)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남도 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광주 대표음식의 상품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9월부터 15주 동안 운영된다.

남도 전통음식 강좌는 평소 접하지 못한 전통음식인 ▲발효·저장음식 ▲향토음식 ▲떡·한과 ▲웰빙한식 ▲생활요리 등 5개 과정이며 실습 위주의 강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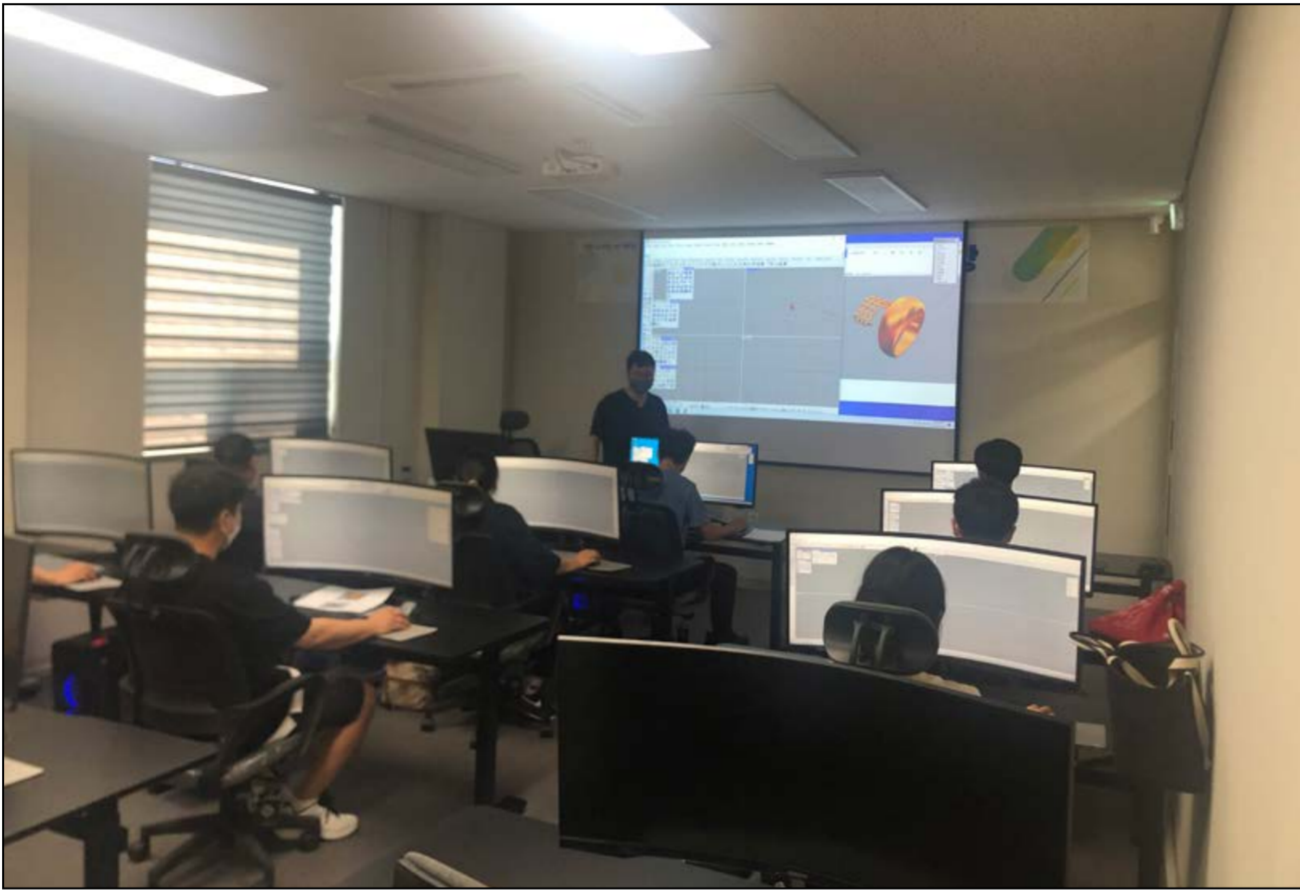
광주 대표음식 강좌는 주먹밥, 오리탕, 상추튀김 등 7가지 광주대표음식 만들기과 무형문화재와 함께하는 광주대표음식, 푸드스타일링 등으로 이뤄진다.

식문화프로그램은 ▲시와 음식 ▲나무와 음식 ▲노래와 음식 ▲차와 음식 등 총 10개 과정으로 음식과 문화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남도 전통음식과 광주 대표음식 강좌 수강료는 12만원, 식문화프로그램은 무료이고 수강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북구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은 지난 2007년 개관 이후 15년 동안 3천150여 명의 전통음식 수료 인력을 배출했다.

/서기만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의 경영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창업스쿨을 개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구청 제공

동구창업지원센터 맞춤형 창업스쿨 개강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의 경영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창업스쿨을 개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구창업지원센터에서 오는 10월까지 운영하는 창업스쿨은 ▲소상공인 대상 주얼리 3D 디자인 교육 ▲청년·예비 창업자 대상 마케팅 교육 ▲외식 창업자 대상 외식 트렌

드·경영 교육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역 내 교육시설과 강사 섭외가 어려워 수도권 등 타지역에서만 수강할 수 있었던 ‘주얼리 3D 디자인 교육’을 올해 3월 총장 주얼리 집적지구에 문을 연 광주주얼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됨에 따라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들이

교육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 강의별 시간대를 평일 오전과 주말 등으로 편성해 교육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동구를 기반으로 한 창업 성공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밝고 활기찬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기만 기자

남구, 녹색도시 ‘전기 자전거 구입비’ 지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전기 자전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는 “전기 자전거가 출퇴근 등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올해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해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정한 안전요건 기준에 적합한 자전거다. 페달링을 감지해 모터가 작동하는 PAS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자전거 전체 중량도 30kg 미만인 자전거다.

다만 페달링이 불필요하며 100% 전기 힘으로 구동하는 스로틀 방식과 스로틀 및 PAS 겸용 방식은 원

동기 장치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전기 자전거 한 대당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8월 1일 기준으로 남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 가운데 만 19세 이상(2003년 8월 1일 출생자까지)인 사람이며, 반드시 관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전기 자전거를 구입해 운영해야만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주민은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남구청 홈페이지 ‘참여세상’을 클릭, 전기 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코너에 접속해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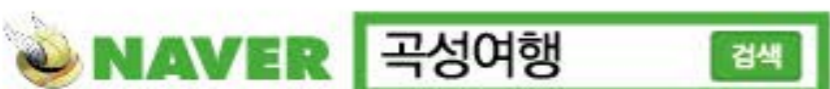
/서기만 기자



한적하고 여유롭게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어디까지?

집나가면 ‘구시’이다

자연속의 가족마을 곡성



2018년 곡성군 사진공모전 최우수상 수상작